

# 여수 경도 레지던스로 미래에셋 등 최소 477억 추가이익

### 건축허가전 공공기여 확보 목소리 지역 부동산 상승 부채질 우려도

여수 경도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관할 관청이 당초 계획의 변경을 승인해 사업자의 수익을 높여줄 경우 공공기여나 수익 일부의 지역 기부 등 공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 투자 유치가 불가피 하지만, 사업자의 이익 제고만을 위해 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익과 이익을 조정하고, 계획 변경에 의한 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남도와 광양만경제청에 따르면 전남도는 이날 오후 사업시행자인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경도지구 타워형 레지던스 건설에 대한 건축·경관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타워형 레지던스 사업은 경도 연륙교 진입부 일원 6만5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레지던스 1184실(11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실별 분양면적은 47평(155㎡)부터 최대 85평(280㎡)형이다. 레지던스는 '호otel 같은 집'의 개념으로 정약통장이 필요없고 전매가 가능하며, 임대와 숙박업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각종 규제에도 자유로워 분양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 지원 참여를 추진 중인 전남개발공사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레지던스 평당 분양가는 1600만원 수준으로 실별 7억5000만~14억원이다.

분양 총수입(추정)은 8102억원으로, 토지비



여수 경도 타워형 레지던스 조감도.

1369억원, 공사비 5272억원 등을 제외한 순이익은 477억원으로 추산됐다. 토지비가 과다 산정된 측면도 있어 개발 이익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초고층 레지던스 신축은 광양만경제청이 미래에셋그룹 측 신청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개발·실시계획을 지난해 10월 변경·승인해줬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해당부지에 당초 계획된 마리나시설 대신 레지던스를 신축한다는 사실은 최근 전남도 경관 심의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내외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또 개발 계획 변경으로 사업자는 477억원 이상의 이익을 추가하게 되지만, 정작 이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나 지역 기부 등 공익 향상 측면은 전혀 없

는 것도 문제다. 광양만경제청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포함된 사업 개발·실시계획 변경으로 레지던스 건축 사업이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공공기여 확보 방침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지역개발 전문가는 "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있어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사업자만이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을 반드시 살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발 인허가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민이 행정기관에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보물 지정

###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도 포함

1500년 전 삼국시대 유물인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이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 금동신발은 5-6세기 백제 금속공예 기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삼국시대 고분 출토 금동신발 중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췄다. 그동안 삼국시대 고분 출토 유물 가운데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은 국보나 보물로 많이 지정됐지만 금동신발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나주 정촌고분 출토 당시 금동신발

문화재청은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금동신발'과 고향 봉덕리 1호분에서 나온 '금동신발'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대형 분구묘인 1호 석실에서 2014년 발굴됐다. 5-6세기 영산강유역에 복암리고분, 정촌고분, 영동리 고분군 등 대형 고분이 축조됐는데 그중 정촌고분은 백제, 마한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출토된 금동신발은 좌우 신발 한 쌍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완벽한 모습이었으며 특히 발등 부분에 부착된 용머리 장식은 현존 삼국시대 금동신발 중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신발의 주인은 4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형태와 제작기법, 문양 등에서 고향 봉덕리 출토 금동신발과 매우 유사하다. 얇은 금동판 4장으로 바닥판과 좌우 옆면판, 발목깃판을 만들어 작은 못으로 연결하는 등 문양을 새

기는 방식에 있어 고대 금속공예 기법이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함께 보물로 지정된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은 백양사에서 300년 넘게 전래된 불교문화재다. 지난 1994년 9월 도난됐지만 이후 2006년 9월 지금의 제자리로 환수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미타여래설법도는 본존 아미타불이 제자들에게 불교 교리를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1775년(영조 51) 백양사 극락전 아미타불상을 중수하면서 새롭게 조성했다. 불화 조성 시기, 참여자 명단 등이 담긴 발원문과 복장장(복장품을 넣는 주머니) 등 복장유물 6건도 온전하게 남아 있어 18세기 후반 불화·복장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에 KS한국고용정보 고객센터 들어선다

### 투자협약...지역인재 우선 채용

광주에 KS한국고용정보 고객센터가 들어선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과 유재중 ㈜KS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KS한국고용정보는 다음달까지 광주에 100석 규모 고객센터를 신설하고, 광주시는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KS한국고용정보는 특히 광주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예정이어서 1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1998년 설립된 ㈜KS한국고용정보는 서울 등에 임직원 6097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매출만 1911억원에 이른다. 콜센터 운영 및 지원, 콜센터 구축, 교육사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S한국고용정보 고객센터 신설 투자지역으로 광주를 결정한 것은, 광주시와 고객센터 수혜기관 등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우수한 인적자원, 저렴한 임대료,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 시민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AI생태계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경제 1번지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의 변화와 혁신의 길에 KS한국고용정보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주)오천투자대부**  
2020-금감원-2027 (대부업, 대부중개업)  
여신금융감독사국 대부업총괄팀 02-3145-8265

**고정수입·안정투자**

**돈·놀분**  
**돈·쓸분**

**문의.010-3605-5000**

대출금리 최고 연24% 이내(연체금리 연24% 이내) 부대비용 있음  
취급수수료 없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수기방)  
대출시 귀하의 신용에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나주시 항소...확정판결 전까지 SRF발전소 가동 어려울듯

### 난방공사 승소 법원 판단에 불복 "광주시 쓰레기반입 수용할 수 없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고흥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나주시가 최근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손을 들어 준 법원 판단에 불복, 항소하기로 하면서 확정 판결 전까지 SRF 발전소 가동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나주시는 21일 강인규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시의 행정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나주시가 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접수하고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당초 계획보다 SRF 연료 사용량이 2배

늘어났고 이는 변경 계약이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사의 사업개시 불허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강 시장은 입장문에서 "광주에서 생산된 SRF의 반입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수용할 수 없다"며 "자기 지역 쓰레기를 이웃집에 버리는 광주시의 이기적 폐기물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또 "그동안 SRF 갈등을 방관하던 광주시가 판결을 앞두고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낸 것은 SRF발전소 문제에서 이해 당사자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쓰레기 자체 처리 계획을 마련한 뒤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는 "아울러 난방공사가 2009년 3월 전남도와 나주시 등 9개 기관과 도내 3개 권역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활용,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던 협약을 준수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정도이자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SRF 발전소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모두 갖추고 지난 2017년 준공됐다. 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 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광주권 연료 반입 문제와 SRF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LNG) 발전소만 가동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총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신